

우리나라 會計學教育에 關한 研究**

A Study on the Accounting Education in Korea

李贊民*

— 目 次 —

- I. 序 論
- II. 大學 教育
- III. 大學에서의 會計學 教育
- IV. 結 論

I. 序 論

과거 대량 생산체제에 의한 풍요로운 삶을 표방했던 산업사회로 부터 오늘날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한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정보화 사회로 바뀌면서 개인이나 사회 및 국가가 대학교육에 기대하는 바는 실로 크다 하겠다.

특히 외국의 유명 대학으로의 유학 등 대학교육의 국제화 추세와 우루파이 라운드(UR)의 여파로 인한 대학의 개방화가 활발히 추진될 전망이 있어 외국 명문 대학의 분교설치 등 대학간의 경쟁은 국경을 초월하여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30여개의 4년제 대학과 11개의 교육대학, 그리고 119개의 전문대학에 100만명 이상의 대학생이 재학하고 있어¹⁾ 양적으로는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온 것은 인정되나 이에 비해 질적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한편, 국제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대학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한편, 사회과학의 한 분야인 회계학은 회계를 그 연구 대상으로 하는 학문으로 오늘날

* 本研究所 研究員, 商經大學 會計學科 副教授。

** 본논문은 93년도 학교 연구지원으로 연구 되었음.

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계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 대학교육 협의회 연구보고, 1990. 3, pp. 16-17.

產業研究

산업사회로 부터 정보화 사회로 이어지면서 새롭게 변해야 할 분야 중에 하나인 것이다. 전국의 80개 대학에서 회계학을 교육하고 있으며 그중 52개 대학은 회계학과가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28개 대학은 경영학과에서 회계학을 교육하고 있다.²⁾

본 논문에서는 먼저 대학 교육의 목적과 대학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 후 특정 분야인 회계학을 중심으로 대학에서의 회계학 교육의 목적과 교육 현황, 그리고 개선방향의 순서로 논의해 보기로 한다.

II. 大學教育

본 장에서는 대학에서의 교육 전반에 걸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대학교육의 목적과 교육현황,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 大學教育의 目的

대학은 지식의 생산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연구, 생산된 지식의 보급의 기능을 맡고 있는 교육, 그리고 생산된 지식의 적용이라는 사회봉사의 세가지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들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작용함으로써 각기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 이들 세가지 기능 가운데 특히 교육은 사회에 수많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대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 교육의 목적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중요한 것으로 첫째, 학문의 우월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으로 진리탐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교육을 해야한다. 둘째, 지성인으로서의 인격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사회가 대학인에게 요구하는 건전한 도덕관과 가치관을 정립시켜주며 아울러 폭넓은 교양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해야한다. 세째, 전문직업인을 위한 교육으로 직장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쌓는 교육을 해야한다.

2. 大學教育의 現況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제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자세한 내용은 상계논문 참조.

첫째, 가치나 윤리와 도덕에 관한 인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는 성숙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을 위한 인간교육이 교과목상에 충분히 포함되어있지 않다. 물론 어려서의 가정교육과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 대학에서는 주로 교양교육과 전문지식의 함양에 중점을 두는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오늘의 우리 현실은 가정에서의 어린이 자녀교육 부재와 유치원과 국민학교시절의 재능위주의 교육 그리고 중고등학교시절의 입시위주의 굴절된 교육으로 대학이 인간교육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 되었다.

둘째, 교양과목이 전공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개설되어 있다. 같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풍부한 교양을 갖춘 사람은 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더 조화로운 인간이고 교양에서 배태된 건전한 사고와 교양이 바탕이 된 폭넓은 상상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서구나 일본등 외국의 경우 교양과목이 대학 교과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0% 이상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45%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³⁾ 그나마 어학을 비롯한 도구적 교양과목과 전공 기초과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순수교양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철학 심리학 논리학 역사학 문학개론 연구방법론 자연과학개론 과목 가운데 여러과목이 개설이 안되고 있다.

세째, 대학에서의 연구기능이 미흡하여 대학에서의 교육과의 상호 협동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의 연구 부족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대학에의 연구 투자액의 부족을 둘 수 있다. 대학과 기업부설 연구소 그리고 정부출연 연구소 3개 기관간 박사학위 소지 연구인력의 분포를 보면 1989년 현재 대학 79%, 기업연구소 6%, 정부연구기관 15%를 차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비 총액의 9.9% 만이 대학에 투자되고 70%가 기업 연구소에 투자되며, 나머지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투자되고 있다. 특히 정부 연구개발비의 76.2%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투자되고 16%만이 대학에 투자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정부지출 연구비의 41.5%를 대학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학들은 연구개발비 총액의 70.1%를 정부로 부터 지원받고 있다.⁴⁾

네째, 오늘날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방적 강의 방식과 교과서 위주의 교육은 학습자에게 수동적 지식, 생동력 없는 지식 등을 주입하는 결과를 낳게 되며, 더욱 생산적인 사고 능력인 비판력, 분석력, 통합력, 창의력 같은 높은 질의 사고 능력 향상에 부적합하다.

다섯째, 교수는 오늘날 과중한 강의 부담, 연구시설과 연구비의 부족 등을 겪고 있지만

3) 원호택, 「대학교육과 인간교육」,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1992. 9, pp. 56-62, 참조.

4) 윤정일, 「21세기를 대비한 고등교육」,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1992, pp. 83-89, 참조.

교수들은 대학에서의 전인적 능력을 요청받고 있다. 즉 전문 분야에서의 학문적 우수성의 확보는 물론이고 전문분야 이외에도 풍부한 문화적 교양과 지식을 함양해야 함과 동시에 도덕적 엄정함과 인격적 기품을 유지할 수 있기를 대학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강의평가제를 포함한 교수업적평가제를 통하여 교수의 연구활동과 강의를 계수적으로 평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견이 최근에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3. 大學教育의 改善點

대학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분야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겠지만 그중 중요한 몇가지만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는 대학 공동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구성원이라 할 수 있다. 대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수들의 연구와 강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대학은 제반의 제도적 장치와, 필요한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에는 연구 안식년제의 전면 실시,⁵⁾ 적정한 주당 강의 시간 배정, 연구와 강의를 도울 수 있는 연구조교와 강의 조교 확보, 국내외 학술회 발표 지원 등 연구활동 지원을 들 수 있다. 한편, 교수는 자신의 연구와 강의 역량을 높이고 학문의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이론적 실천적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둘째,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교수가 설문지 작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학생들로부터 수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대학에서는 교수에 대한 근무 수행 평가에 학회활동을 포함한 연구실적과 학생에 의한 수업 평가 그리고 학내의 각종 위원회 활동등 봉사활동으로 나누어 정년재직보장(tenure)을 받기 전에는 매년 심사를 받는것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는 당사자와 각 학과 학과장과 학장에 보고되어⁶⁾ 교수의 승진과 보수 그리고 계약연장 등 행정적 인사결정을 내리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뿐 아니라 교수 개인의 전문성 성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전면적인 실시는 실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성숙된후 점차적으로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으며 또한 당장 실시가 용이한 방법으로 교수가 자신의

5) 1985년 한신대를 시작으로 89년에 동국대, 90년에 연세대, 91년의 고려대와 이화여대가 각각 실시하고 있다.

6) 평교수들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평교수들과 학장은 학과장들을 평가하며, 또한 평교수들과 학과장들은 학장을 평가하게 된다.

우리나라 會計學教育에 關한 研究

수업을 스스로 평가해 보는 것이다. 즉 교수 자신이 자율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향후 강의 준비과정에 수렴시킴으로써 수업 개선과 교수 자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세째, 교과목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과목 개발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 설치 운영하며 연구발표회와 공청회를 사안에 따라 개최하여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하고 기존 교과목의 교육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네째, 수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오버헤드 영사기(overhead projector)와 컴퓨터화면 영사기 그리고 비데오 시설등 시청각 기자재의 강의실에의 설치 등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 확대로 학생들이 편리하게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연구기능의 활성화로 교육을 지원한다.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 연구소 위주의 재정지원에서 대학 부설 연구소 위주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하며, 새로운 연구소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의 대학 부설 연구소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산-연 협동체제를 강화하여 대학과 산업체 그리고 연구기관이 실험-실습 기자재와 시설을 공동 활용도록 하고, 연구자료와 기술정보 등의 교류를 활성화해야 한다. 또한 우수 연구인력을 대학원 논문 지도교수나 석좌교수로 임용하는 한편, 산업체 위탁교육제도를 도입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면서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여섯째, 교수의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워크숍(workshop)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교수들은 각자 전공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학생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육자체에 대한 교육은 체계적으로 받을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강의방식과 학생지도등 교육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교수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히 신규임용교수들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⁷⁾

7)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최하는 대학교수 개발 워크숍이 신임교수 중심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교수와 연구 능력 제고, 교수의 대학교육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한 강습회, 그리고 교수간 수업활동 및 학생지도에 관한 정보교환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1993년의 경우 129명의 교수가 참석하였다.

III. 大學에서의 회계학 教育

1. 會計學 教育의 目的

회계학 교육의 주된 목적은 전문회계인이 갖추어야 할 여러가지 자질을 교육시키는 일이다. 이들 자질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기본소양, 지식, 그리고 직업관이다. 기본소양은 다시 읽기, 듣기, 쓰기, 발표력에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과 정보를 이용하여 비정형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지적능력, 그리고 지도력과 협동심과 관련된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능력이 포함된다. 지식은 다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등 일반지식과 정보기술과 조직사회에 관련된 조직과 기업에 관한 지식 그리고 회계 전문지식으로 나눈다. 끝으로 직업관은 직업윤리관을 정립하고 명확한 직업의식을 갖는 일이다.⁸⁾

2. 會計學 教育의 現況

우리나라 회계학 교육의 제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과목에 편중되게 교과목이 짜여있다. 교과목을 크게 일반교양, 계열교양, 그리고 전공과목으로 나누어 보면 외국의 경우 전체 가운데 일반교양이 40%, 계열 교양이 20%, 그리고 전공이 40%를 차지하는데⁹⁾ 비해 우리나라는 일반교양과목이 30% 내외이며 계열교양이 15%, 그리고 전공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양교육의 소홀함을 알 수 있다.¹⁰⁾ 회계 전문지식은 경제학, 경영학, 경영통계학등 계열 교양과목과 철학, 심리학, 윤리학등 일반 교양과목의 뒷받침이 있어야 더욱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둘째, 강의 내용이 교과서 중심적이며 정형화된 문제(structured problem) 풀이에 치우쳐 있다. 이론에 치우친 강의는 규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현실

8) Accounting Education Change Commission, "Objectives of Education for Accountants : Position Statement Number One,"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Fall 1990, pp. 307-312, 참조.

9) Jan R. Williams, "Curriculum Innovation and 150-Hour Legislation : Friends or Foe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Spring 1990, pp. 1-6, 참조.

10) 단국대학교 상경대학 회계학과의 경우 일반교양이 20%, 계열교양이 15%, 전공이 50%, 그리고 자유선택이 15%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어 회계학의 고유 특성상 이론적이며 또한 실천적인 양면의 조화가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정형화된 문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는 확실성하의 문제 유형으로 하나의 기준이 되는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은 있으나 학생들로 하여금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주지 못하고 단순히 기계적이고 계산 수리 능력만을 키워줄 위험이 있다.

세째, 미시회계(micro accounting)에 너무 많은 시간이 할당되어 있다. 즉, 회계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회계처리 방법을 잘 알아야 전전한 회계실무가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회계는 회계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주 바뀔수 있는 상당히 가변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계의 거시적인 특성이 있는 기업회계 기준의 설정 배경과 설정과정, 공인회계사회의 활동사업, 회계활동을 감독하고 있는 증권감독원의 역할과 업무 현황, 그리고 회계와 회계학의 역사 등 거시회계관련 교과목의 신설 또는 강화가 학생들로 하여금 회계를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네째, 교과목이 재무회계 일변도로 짜여있어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점차 고조되는 요즈음 새로운 관리회계과목의 개설이 요망되는데 여기에는 관리회계원리, 중급관리회계, 고급관리회계와 같이 관리회계를 어려움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할 수 있으며, 또한 관리회계사례연구, 관리회계이론, 그리고 관리회계 연구방법론 등이 추가로 개설될 수 있다.

다섯째, 회계교육 자체에 대한 연구활동이 부진하다. 이제까지 회계연구는 그 주제가 재무회계 아니면 관리회계로 한정되어 회계교육을 주제로한 연구는 다른 회계학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컴퓨터 교육의 불충분과 전산 기자재의 부족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회계의 전산 처리는 수작업에 의한 회계처리와 비교하여 그 효율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데, 컴퓨터를 이용한 회계학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회계정보시스템을 제외하고는 컴퓨터 이용이 거의 안되고 있다.¹¹⁾ 또한 전국의 45개 대학 중 80%가 회계정보시스템을 개설하고 있으나 20%만이 필수과목으로 하고 있다.¹²⁾

한편 전산기자재인 컴퓨터의 보급을 보면 전국 45개 대학을 대상으로한 설문지 조사에

11) 이찬민, 한진수, 「우리나라 회계실무와 회계학 교육에 있어서 컴퓨터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1990, pp. 133-150, 참조. 전국 45개 대학을 대상으로한 설문지 조사에서 회계정보시스템은 33개 대학, 재무회계는 4개 대학, 관리회계는 5개 대학, 회계감사는 2개 대학, 그리고 세무회계는 0개 대학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하고 있다.

12) 자세한 내용은 상계논문 참조.

서 상경계 학생들이 전용으로 쓸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가 평균 20대 미만으로 학생 70명 당 1대에 지나지 않는다.¹³⁾

3. 會計學 教育의 改善點

앞에서 논의한 우리나라 회계학 교육의 제문제점을 기초로하여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회계전문지식의 습득에 앞서 회계 전문 지식을 효과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인 기본소양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서면으로 보고하는 의사전달 능력(communication skill)과 학교내에서의 동료와 선후배 그리고 교수와의 원활한 대인관계와 직장내에서 직장 동료와 상사와의 대인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능력(interpersonal skill), 그리고 불확실성하에서의 비정형화된 문제(ill-structured problem)의 해결능력과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교과목 개발이 긴요하다.

둘째, 현장교육이 필요하다. 의학에서와 같이 인턴쉽, 레지던트쉽 등 교실에서 배운 기술이나 지식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경험을 할 수 있는 현장 실습 과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현장 학습 과목을 정규과목으로 개설하여 3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협력 산업체에서 실시하며, 성적 평가는 협력 산업체에서 보낸 평가보고서와 학생이 작성한 현장 보고서를 토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산업체, 대학, 그리고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산학협동의 의미가 있다.

세째, 강의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비판력과 발표력을 키우고 수업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소집단으로 재구성하여 이 소집단을 단위로 하여 정기적으로 발표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 상호간의 협동심을 키워주며, 집단내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른 개인별 책임감을 느끼게 하며, 동료간의 토론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의사전달 능력을 키워 학습효과를 높이게 된다.¹⁴⁾

네째, 강의 내용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회계학은 실천학문으로서 현장감 있는 교육이

13) 자세한 내용은 상계논문 참조.

14) 이러한 소집단 교육 방법은 다음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첫시 간에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학생들로부터 사전에 개인별 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며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참여도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 교과서와 연구논문 중심의 이론적인 강의 내용과 함께 현장감 있는 사례중심 강의가 같이 병행하여 이루어질때 보다 높은 학습효과를 올릴 수가 있다. 사례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으며 하나 이상의 서로 다른 해결 방안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력과 판단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준다.¹⁵⁾

다섯째, 회계학 교과목 평가 인정제(accreditation)를 도입하여 교내외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회계학교과목평가위원회의 정기적인 심의를 통해 대학에서의 교과목 설정 기준을 마련하여 회계학 교육의 불균형을 없애고 나아가 교과목 개발과 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도록 한다.¹⁶⁾

IV. 結 論

본 논문은 대학교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대학교육 일반과 대학에서의 회계학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먼저 교육목적에 기준을 두어 현재의 교육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으로 회계교육 현장에서 수집되는 각종 자료가 분석되어 이를 바탕으로한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면 한다.

또한 회계학 연구가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분야에서만 국한되어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회계학 교육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연구과제의 개발이 요청된다 하겠다.

15) 사례중심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출석과 예습 철저, 강의시간 엄수와 적극적 참여가 요청되며, 강사는 진행계획에 대한 준비철저와, 강사의견 제시 최소화와 올바른 대화 유도 등 통제역할, 그리고 학생참여 유도와 발표 독점 규제 등 발표 분위기 조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16) 회계학 교과목 평가위원회는 일차적으로 교과목 내용과 교과목의 필수와 선택결정, 그리고 신규 교과목 개발등을 심의·평가하게 된다. 참고로 대학 평가 인정제가 현재 실시 중이다. 학과목표, 교육과정, 학생과 교수, 시설과 설비, 그리고 경영과 재정 등 6개 영역을 학부와 대학원으로 나누어 1992년도에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 1993년에 화학과와 기계공학과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參 考 文 獻

1. 書 稿

한국 경영교육 위원회, 『경영학 교육의 평가 및 발전연구』, 1980.

American Accounting Association, *Researching the Accounting Curriculum: Strategies for Change*, 1975.

Robert W. Ingram, *Computer Integration into the Accounting Curriculum: Case Studies*, 1988.

Donald H. Skadden, *Accounting Education: New Horizons for the Profession*. 1977.

2. 研究論文

원호택, 「대학교육과 인간교육」,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1992, pp. 56—62.

윤정일, 「21세기를 대비한 고등교육」,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1992, pp. 83—89.

이장노, 「인턴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대학교육, 한국대학교육 협의회, 1992, pp. 106—109.

이찬민, 한진수, 「우리나라 회계실무와 회계학 교육에 있어서 컴퓨터 이용현황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1990. 12, pp. 133—150.

이화국, 「대학평가 인정제 정착의 방향과 과제」, 대학교육, 한국대학 교육협의회, 1993, pp. 67—73.

한국 대학교육 협의회, 「회계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 대학교육협의회 연구보고, 1990. 3, pp. 16—17.

Accounting Education Change Commission, "Objectives of Education for Accountants: Position Statement Number One,"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Fall 1990, pp. 307—312.

Penne L. Ainsworth and David R. Plumlee, "Restructuring the Accounting Curriculum Content Sequence: The KSU Experience,"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Spring 1993, pp. 112—127.

Allan R. Bailey and William F. Bentz, “*Accounting Accreditation : Change and Transition,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Fall 1991, pp. 168—177.

William H. Beaver, “*Challenges in Accounting Education,*” Spring 1991,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pp. 135—144.

Philip G. Cottell, Jr. and Barbara J. Millis, “*Cooperative Learning Structures in the Instruction of Accounting,*”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Spring 1993, pp. 40—59.

Robert K. Elliott, “*Accounting Education and Research at the Crossroad,*”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Spring 1991, pp. 1—8.

W. Robert Knechel, “*Using the Case Method in Accounting Instruction,*”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Fall 1992, pp. 205—217.

Theodore J. Mock, Karen V. Pincus, and James M. Andre, “*A Systems Approach to Accounting Curriculum Development,*”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Fall 1991, pp. 178—192.

Alan P. Mayer-Sommer, “*Substance and Strategy in the Accounting Curriculum,*”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Spring 1990, pp. 129—142.

Doyle Z. Williams, “*The Challenge of Change in Accounting Education,*”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Spring 1991, pp. 126—133.

Jan R. Williams, “*Curriculum Innovation and 150-Hour Legislation : Friends or Foes?*” Issues in Accounting Education, Spring 1990, pp. 1—6.

